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4·3 경험과 인식

- 1948년 제주도에 파견된 미국 고문관들을 중심으로

허 호 준*

국문초록

이 글은 미군정기에 일어난 제주4·3의 진압과정에서 제주도 경비대에 배치된 미군 고문관들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는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주둔했던 경비대 고문관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한 것을 주요 분석대상으로 했으며, 이들과 교환했던 이메일 및 편지, 회고담 등도 참고했다.

제주4·3의 무장봉기와 5·10선거, 정부수립, 여순사건, 초토화작전으로 이어지는 1948년은 제주4·3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 시기 제주에 파견된 미군 고문관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투를 경험한 장교들이다. 이러한 전투경험을 갖고 있는 고문관들은 제주도 주둔 경비대에 파견돼 제주4·3의 진압작전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에 참여했다.

고문관들은 제주4·3이 북한 또는 소련과의 연계성을 갖고 있다고 믿었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를 본 적은 없었다. 미군 고문관들의 보고서에는 많은 제주도민들이 희생됐다는 기록이 나와 있지만, 그들은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거의 모른다고 말했다. 고문관들은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낸 제9연대장 송요찬을 매우 강인한 인물이라고 할 정도로 그를 평가했다. 제주도에 파견됐던 고문관들의 주요 임무는 제주4·3의 발발 원인을 파악해 치유하는 것보다는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와 공산주의 동조자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이들을 섬멸하는 것이었다.

중심어 : 제주4·3, 미군 고문관, 경비대, 초토화작전, 대량학살

* 제주대학교 평화연구소 특별연구원·정치학박사

I. 머리말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가 2003년 10월 확정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제주4·3의 구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많은 성과를 보였다.¹

그러나 미군정기에 일어난 제주4·3 진상조사의 미흡한 부분 가운데 하나는 미국의 개입 부분이다. 『진상조사보고서』는 미군정과 주한 미군사고문단이 사건의 발발과 진압과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제주4·3위원회 2003, 539). 더 나아가 커밍스(Bruce Cummings)는 제주4·3 진압과정에서의 광범위한 대량학살과 가혹한 야만성(unsparring brutality)에 대한 미국의 법률적·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1998).

제주4·3은 미군정 시기에 일어났고, 당시 남한에 있던 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기관들은 사건의 전개과정을 정밀하게 꿰뚫고 있었다. 제주도 주둔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4·3에 대한 경험과 인식은 미국의 개입의 정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다.

제주도 주둔 경비대에 배치된 미군 고문관들은 경비대와 함께 움직였고, 경비대의 작전 내용을 파악했다. 고문관의 임무 가운데 하나가 ‘남한 내 파괴분자들의 진압과 섬멸’²이었듯이, 이들의 임무는 제주도의 소요사태를 진압하는 것이었으며, 실제로 이를 위해 작전을 수립하고 실행에 참여했다.

그러나 국내의 미군정기 및 한국군 연구와 관련해 당시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 고문관들에 대한 직접 인터뷰를 통한 연구는 없다.³ 더구

1 이하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는 ‘제주4·3사건위원회’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진상조사보고서』로 한다.

2 Subj: Transmittal of copy of *Advisor's Handbook* of K MAG, from American Embassy, 28 Oct, 1949.

3 미군 고문관들에 대한 연구는 미국에서 논문이 발표됐다. Allan R. Millett, *Captain James H. Houseman and the Formation of the Korean Army, 1945-1950*, Armed

나 제주도 사태 진압과 관련한 정책결정의 토대가 됐던 제주도 주둔 고문관들에 대한 연구는 이뤄진 적이 없었다.

1948년은 제주4·3의 봉기, 5·10선거 및 6·23재선거, 한국정부 수립, 여순사건, 초토화작전 등 일련의 사건이 전개돼 제주4·3의 전개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였다.

이 글은 1948년 제주도에 근무했던 미군 고문관들을 대상으로 했다. 미 보병 제6사단 20연대장이었던 브라운(Rothwell H. Brown) 대령과 제주도 주둔 경비대 연대 고문관 및 대대 고문관 출신들인 리치(James Jimmie Leach) 대위, 웨솔로스키(Charles L. Wesolowsky) 중위, 조셉(Edwin M. Joseph) 중위, 켈소(Minor L. Kelso) 중위, 피쉬그룬드(Harold S. Fischgrund) 중위가 그들이다.⁴

따라서 이 글은 제주4·3에 대한 미군 고문관들의 경험과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제주도에 파견됐던 고문관들에 대한 인터뷰를 주요 분석 대상으로 했다. 이밖에 이들과의 필자 간에 있었던 이메일 및 편지, 그리고 미국 내 언론에 실린 회고담 등도 참고했다. 웨솔로스키(플로리다), 조셉(버지니아), 피쉬그룬드(버지니아)에 대한 인터뷰는 2001년 10월, 리치(사우스캐롤라이나)에 대한 인터뷰는 2007년 12월 미국 현지에서 이뤄졌다. 인터뷰 주체는 제주4·3연구소 관계자들이며, 켈소는 필자와 여러차례 편지를 교환했다.

연구의 한계도 있다. 구술자료를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와 함께 고문관들의 인터뷰를 교차검토할 수 있는 새로운 문헌자료의 발굴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당

Forces & Society, Summer 1997, Vol. 23 no.4, pp.503-539. 필자도 Allan R. Millett 교수로부터 많은 도움을 얻었다.

4 리치와 피쉬그룬드는 대령으로 예편했고, 나머지 장교들은 중령으로 예편했다. 이 글에서는 제주도 주둔 당시 계급을 사용하기로 하겠다. 이 글에서 버제스(F. V. Burgess) 대위에 대한 분석은 그의 기록을 찾을 수 없어 제외했다. 단지 그의 후임자인 피쉬그룬드는 버제스가 고문관 활동에 열의가 없었다고 기억했다.

시 미군 고문관들의 역할을 입증할만한 문헌자료 발굴이 어렵게 된 상황에서 구술자료의 효용성은 크며, 기록형태로 제시될 때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염미경 2003, 18-19).

II. 미군 고문관들의 군사적 배경과 고문관의 제주도 파견

1. 미군 고문관들의 군사적 배경

공식적인 주한미군 고문단제도의 형성은 한국정부 수립 이후 ‘한·미 잠정군사협정’(1948. 8.24)에 따라 한국군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임무를 위해 로버츠 준장을 단장으로 조직된 임시군사고문단(Provisional Military Advisory Group · PMAG)과 그 이후 1949년 7월1일 정식발족한 주한미군사고문단(U.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에서 찾을 수 있다(Sawyer 1962, 34-35; 45).

그러나 미군 고문관 제도는 사실상 미군의 남한 점령과 함께 시작돼 발전해왔다(KMAG 1955, 2). 초기 미군 고문관들은 한국군 창설과 확대, 교육 및 훈련 전담 등을 통해 한국정부 수립 후의 군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조직으로서 기능했다(안정애 1996, 255).

1948년 5월 초순께 제주도 최고 지휘관으로 부임한 미보병 제6사단 제20연대장인 브라운 대령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중국-버마-인도 전구(戰區)(China-Burma-India Theater)에서 참전한 전차장교 출신이다.⁵ 그는 1943년 10월1일 인도 람가르(Ramgarh)에서 창설된 제1임시탱크단(1st PTG) 사령관을 지냈는데, 이 부대는 중국 국민당군과 미군부대

5 James H. Leach 인터뷰. 2007. 12.

가 공동으로 만든 부대로 6개 탱크대대로 이뤄졌다. 제1임시탱크단은 1943년 12월23일 랍가르를 출발해 버마를 거쳐 중국 곤명에 이르기까지 일본군과 여러차례에 걸쳐 격렬한 전투를 치렀다. 브라운 대령 휘하에 있던 한 병사는 그가 전선의 전사(front-line fighter)이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또 스틸웰 장군과 함께 장개석으로부터 전투에서 중국군 부대를 지휘할 권한을 인정받은 유일한 미군 장교였다.⁶

제9연대와 제11연대 고문관을 지낸 리치 대위는 제2차 세계대전 때 패튼(George Patton) 장군 휘하에서 탱크중대 소대장으로 근무했으며(Beaufort Gazette, December 12, 2009), 1944년 프랑스 상륙작전을 개시했을 때 제4장갑사단 제37탱크대대 B중대장으로 활약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가 주는 레종도뇌르 훈장을 받았다(Beaufort Gazette, August 22, 2010). 1944년 12월 유럽의 발지전투(Battle of the Bulge)에서 참가해 부상을 입기도 하는 등 유럽에서 5차례 부상을 입었고 5개의 명예상이 훈장(Purple Heart)을 받기도 했다. 또 1944년 12월24일 비곤빌(Bigonville)에서의 전투로 미국 군사분야 최고 훈장인 의회명예훈장(Medal of Honor) 다음의 청동무공십자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받았다.⁷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 휴스턴대학을 다녔고, 예비역 대위로 있다가 정규군에 응모해 1947년 정규군 기병대위로 한국에 발령받았다.

웨스트포인트 출신의 웨슬로스키 중위는 한국이 임관 뒤 최초의 근무지다. 그는 한국에 부임한 뒤 로버츠 군사고문단장의 명령으로 제주도에서 파견됐으며 1년 정도 고문관 활동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갔다. 한국전쟁이 나자 제187공수부대원으로 참전 수훈십자훈장(Distinguished Service Cross)을 받았다.

6 <http://cbi-theater-6.home.comcast.net/~cbi-theater-6/1ptg/1ptg.html> (검색일 2011. 2.22).

7 Matthew Hermes, *Tanker Jimmie Leach: One of Patton's Last WWII Tank Commanders Tells His Story of War and Service*, <http://jimmieleach.us> (검색일 2011. 2.22).

켈소 중위는 1946년 웨스트포인트를 졸업하고 낙하산부대 훈련을 받고 1년이 안돼 중위 계급장을 달고 한국에 발령받아 21개월 동안 복무했다. 1년 이상을 주한미군사고문단(KMAG)에서 활동했다. 그는 제주4·3과 여순사건을 차례로 경험했으며, 한국전쟁 때는 공수부대 원으로 참전했다.

피쉬그룬드(Harold S. Fischgrund)는 1942년 8월 임관했고, 제2차 세계 대전에 참전해 벨기에, 프랑스, 독일, 체코슬로바키아의 전쟁터에서 싸웠다. 은성무공훈장, 명예상이훈장, 동성무공훈장, 공로훈장(Legion of Merit) 등을 받았다. 그는 베트남전에서도 고문관으로 활동했다. 피쉬그룬드의 친구들은 그를 전사(warrior)로 평가했다.⁸ 1948년 8월15일 중위로 한국에 도착했다.⁹ 1949년 1월 대위로 진급한 뒤에는 여순사건 마지막 빨치산들을 소탕하기 위한 남원전투사령부 정일권 사령관의 고문관으로 활동했다.

2.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도 파견 경위 및 시기

미보병 제6사단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의 제주도 파견된 시기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제24군단 작전참모부 슈(M. W. Schewe) 중령의 보고서¹⁰와 브라운 대령의 기자회견 내용, 제주도에 배치된 미군 고문관들의 증언을 분석해 그의 제주도 부임일을 5월20일경으로 추정했다(제주4·3위원회 2003, 213).¹¹

8 http://articles.dailypress.com/2007-04-25/news/0704250116_1_franklin-historical-society-classmates-turkey (검색일 2011. 2.20).

9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2001.10.

10 "Disposition Form, Report of Activities at Cheju Do Island," April 29, 1948, RG 338.

11 슈 중령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는 1948년 4월27일에는 적어도 제20연대 참모들과 함께 제주도에 있었다. 또 『현대일보』 1948년 6월3일자 기사와 『조선중앙일보』 1948년 6월8일자 기사에서는 둘다 제주도 특파원 보도를 통해 브라운 대령이 10일 전에 부임했다고 나와 있고, 『자유신문』 1948년 6월18일자는 약 2주일 전에 부임했

그러나 제11연대와 함께 연대 고문관으로 부임한 리치 대위는 자신이 부임했을 때 제9연대가 모슬포에 있었고, 브라운 대령과 휘하의 참모들도 있었다고 회고했다.¹² 이와 함께 통위부 고문관 프라이스 대령은 5·10선거의 실패 직후인 5월12일 제9연대 고문관 리치 대위에게 미군정의 장교가 급파될 것이라는 통신문을 보낸 점으로 미뤄 브라운 대령의 제주 파견은 5월20일경이 아닌 5월 초순경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가 제주를 떠난 것은 6월 하순-7월 초순경으로 보인다. 제주도에 파견된 미보병 제6사단 제20연대 장교들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리치 대위는 한국에 온 뒤 처음에는 영등포 보충대 중대장으로 한국에 오거나 나가는 미군들을 관리하고, 교육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유럽의 전쟁터를 누비고 여러 개의 훈장을 받았던 그는 보충대 근무가 역겨운(distasteful) 일이었다고 말했다.

<표 1> 1948년 제주도 주둔 미군 제6사단 전술부대¹³

미 보병 제6사단 제20연대(광주)			
직책	계급	이름	기간
제주도 최고 사령관	대령	Rothwell H. Brown	1948.5.초-1948.6.하(?)
참모	소령	Russell C. Geist Jr.	
	소령	Portius	
	중위	Montgomery	
6사단 조종사	중위	Poindexter	
	중위	Fred Ericson	

다고 나와 있다. 또 브라운 대령이 1948년 5월22일부터 6월30일까지의 제주도에서 작전을 벌인 활동보고서(제주4·3연구소 2001, 170-182)가 있다.

12 James H. Leach 인터뷰.

13 참모와 6사단 조종사들의 근무기간은 불명확하다. 그러나 6사단 조종사들은 1948년 4월에 연락기들의 활동상황이 나와 있고, 1948년 10월에도 중산간 지역 정찰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어 조종사들은 상시 배치됐던 것으로 추정된다.

리치 대위가 프라이스 대령에게 신고하러 갔을 때 프라이스 대령은 그에게 미래 한국의 웨스트포인트가 될 사관학교 교관으로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프라이스 대령은 이어 리치 대위에게 “송호성 장군과 하우스만 대위를 만나라. 그러면 귀관을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라고 했다. 당시 하우스만(James H. Houseman)은 경비대사령관 송호성의 고문관겸 연락장교였다.

송호성 사령관과 하우스만 대위는 리치 대위에게 제주도에서 살해 사건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의를 줬고, 민간업무와 공공 교통수단이 붕괴되고, 주민들이 공산주의자와 그 동조자들로 인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리치 대위에게 사관학교 근무 대신에 제주도에 가라고 말했다. 리치 대위는 이에 따라 1948년 5월 초순경 제주도 주둔 경비대 고문관으로 부임해 7월 하순경까지 있었다.

웨솔로스키 중위는 2차례에 걸쳐 제주도 주둔 경비대 고문관으로 근무했다. 처음에는 제11연대의 대대 고문관으로 제주도에 부임했고, 그 뒤에는 제9연대 고문관으로 부임했다. 그는 제주도 근무를 명령받기 전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거의 몰랐다고 한다. 박진경 연대장이 암살된 시기에도 제주도에 있었던 점으로 미뤄 그의 부임 시기는 1948년 6월 초·중순경이다. 이 시기 제11연대 고문관은 리치 대위였다. 제11연대와 함께 7월 하순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한 뒤 웨솔로스키 중위는 로버츠 장군에게 신고했는데, 제주도의 상황을 물어본 뒤 이번에는 제9연대 고문관으로 제주도에 다시 파견돼 8월18일까지 근무했다.¹⁴

켈소 중위는 처음에 1948년 한국에 들어온 뒤 기지통신보급장교 고문관으로 배치됐으나, 보병 부대로 재배치해 줄 것을 요구해 1948년 8월6일부터 10월 초순경까지 대대 고문관으로 제주도 모슬포에 발령

14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2001.10.

받았다.¹⁵

피쉬그룬드 중위는 1948년 8월15일 한국에 부임했다. 그는 친구 예이츠(Eames Yates) 대위의 소개로 당시 경비대사령관 고문관으로 주한미군사고문단(KMAG) 사령부에 배속된 하우스만을 만나 주한미군사고문단에 배속됐다. 그는 처음에 서울에 있던 제9연대 부고문관겸 대대 고문관으로 배치받았다가 제9연대와 함께 제주도로 이동했다.¹⁶ 그가 대대 고문관으로 부임할 당시 연대 고문관은 버세스(F. V. Burgess) 대위였으며, 그가 12월 초 제주도를 떠나자 연대 고문관으로 12월말까지 있었다. 그는 제주도에 부임하기 전 제주도에 소요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심각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듣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1948년 제주도 주둔 경비대에 배치된 고문관들은 <표 2>와 같다.

<표 2> 1948년 제주도 주둔 경비대 미군 고문관

국방경비대	직책	계급	이름	근무기간
제9연대	고문관	대위	James Jimmie Leach	1948. 5.초-1948. 5.중
제9연대	부고문관	중위	Lonnie Davidson	1948. 5.초-?
제11연대	고문관	대위	James Jimmie Leach	1948. 5.중-1948. 7.하
제11연대	부고문관	중위	Charles L. Wesolowsky	1948. 6.초-1948. 7.하
제9연대	고문관	중위	Charles L. Wesolowsky	1948. 7.하-1948. 8.18
제9연대	1대대고문관	중위	Minor L. Kelso	1948. 8. 6-1948.10.중
제9연대	2대대고문관	중위	Joseph M. Edwin	1948. 8. 6-1948.10.중
제9연대	고문관	대위	F. V. Burgess	1948. 8.11-1948.12.초
제9연대	부고문관	중위	Harold S. Fischgrund	1948. 8.초-1948.12.중
제9연대	고문관	중위	Harold S. Fischgrund	1948.12.중-1948.12.말
제2연대	고문관	중위	Sabreski	1948.12.말-?

15 켈소가 필자에게 보낸 편지, 2001.9.6.

16 피쉬그룬드가 밀레트에게 보낸 편지, 1997.6.2.

Ⅲ. 미군 고문관들의 개입의 정도와 역할

1. 제주도인민유격대가 단선·단정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1948년 4월3일 제주도인민유격대가 단선·단정을 반대를 기치로 내걸고 우익인사들에 대한 공격을 시작으로 무장봉기를 강화했다. 이에 대해 미군정은 경찰 물리력만으로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진압 작전의 주체를 경찰에서 경비대로 옮겼다.

딘 군정장관은 5·10선거의 성공적인 실시를 위해 제주도 제59군정중대 사령관 맨스필드(John S. Mansfield) 중령에게 경비대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명령했다.¹⁷ 미 제24군단 작전참모부 슈(M.W. Schewe) 중령이 제주도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4월27일 제주도에 도착해 맨스필드 중령을 만나는 자리에 함께 있던 미 제6사단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은 맨스필드 중령에게 경비대가 즉각 작전에 나서고, 미군은 개입하지 말도록 하는 하지 장군의 지시사항을 통보했다.¹⁸ 미군정과 브라운 대령, 슈 중령 및 맨스필드 중령의 대화 내용을 보면, 주한미군사령부와 미군정은 적어도 4월 말 정도까지는 제주도 소요 진압의 책임을 제59군정중대 사령관 맨스필드 중령에게 맡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미군정의 남한 점령의 핵심인 5·10선거를 목전에 둔 시점에서 소요가 가라앉지 않자 5월 초순을 전후해 제주도 소요의 진압 책임이 제59군중대 사령관에서 제20연대장 브라운 대령에게로 넘어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는 또 딘 군정장관이 4월29일과 5월5일 2차례에 걸쳐 제주도를 방문한 시기와 맞물린다.

『진상조사보고서』는 『서울신문』 1948년 5월7일자 보도를 인용해

17 "Cheju-Do Operation," April 18, 1948, RG 338, NARA.

18 Ibid.

딘 군정장관이 4월29일과 5월5일 제주도를 다녀갔다고 하면서 제주도 방문이유에 대해 알려져 있지 않다고 밝혔다(제주4·3위원회 2003, 202).

그러나 4월29일 제주도를 방문한 미군 관계자는 딘 군정장관만이 아니라 제6사단장 워드(Olando Ward) 소장도 있었다. 이들은 소형 비행기(연락기)를 타고 경비대가 마을을 포위하고 심문을 하기 위해 18살 이상의 모든 남성을 체포하는 산간지역을 시찰했다(New York Herald Tribune, 1948. 4·30).¹⁹ 미군정 최고 책임자만이 아니라 미군 전투부대 사단장이 소요 지역을 방문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경비대 총사령부 정일권 총참모장은 5월3일 이후 브라운 소장, 딘 군정장관 등 현지 지휘사령부의 명령에 의하여 단시일 해결책으로 단연 공격작전으로 나가게 되었다고 밝혔다(『한성일보』 1948. 8.14).²⁰ 이어 5월5일에는 딘 군정장관과 민정장관 안재홍, 경무부장 조병옥 등 군정수뇌부가 제주도에서 회의를 가졌고, 다음날 제9연대장 김익렬이 박진경으로 교체됐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하면, 5·10선거를 앞둔 이 시기를 전후해 제주도 최고 지휘관이 맨스필드 중령에서 브라운 대령으로 바뀐 것으로 판단된다. 리치 대위는 맨스필드 중령이 제9연대에서 손을 놓고 있었고, 책임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²¹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투경험이 풍부한 브라운 대령은 제주도에 특파된 기자들과 함께 여러차례 제주도를 답사하고, 6월23일의 재선거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내려 했다. 그의 제주도

19 딘 군정장관과 워드 소장의 제주 방문 전날인 4월28일에는 미국 특파원 레이몬드(Allen Raymond)와 사진기자 마이던스(Carl Mydans)가 소요 취재차 제주도에 왔으며, 이들과 함께 29일 서울로 돌아갔다. 주한미군정은 이날 제주도 주둔 미군 장교 부인 4명과 자녀 3명도 함께 '탈출'시켰다.

20 여기서 보도한 브라운 소장은 워드 소장의 오기로 보인다. 제6사단장은 브라운(Albert E. Brown) 소장이 1946년 6-9월, 워드(Olando Ward) 소장이 1946년 10월 부터 1949년 1월까지 역임했다.

21 James H. Leach 인터뷰.

사태 진압에 대한 자신감은 곳곳에서 묻어났다.

그는 6월2일 기자들과 만나 “6월23일 재선거 시에는 자유롭게 자기네의 대표를 선출하도록 될 것이다. 여하간 사태는 6월23일까지에는 진정될 것이다”고 밝혔다(『현대일보』 1948. 6.3). 그는 또 “나의 계획대로 나간다면 약 2주일이면 대개 평정되리라고 믿는다”며 “나는 원인에 대하여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시키는 것 뿐이다”고까지 말했다(『조선중앙일보』 1948. 6.8).

제2차 세계대전 때 인도·버마·중국의 광활한 전쟁터에서 수많은 전투를 경험하며 ‘전선(前線)의 전사(戰士)’라는 호칭을 얻었던 브라운 대령은 변변한 무기도 없이 고립된 섬에서 치고 빠지기식의 게릴라전을 시도하는 유격대의 조기 진압을 자신했다²².

이에 대해 웨슬로스키 중위는 브라운 대령이 평정계획을 실시하고, 소요 사태를 거의 진정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는 모든 고문관들을 책임지고 고문단을 조직했어요. 평정계획(pacification plan)이 있었습니다.……모든 것이 진정됐습니다. 그는 초기 사태를 거의 완전하게 진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적의 점령 하에 있는 많은 고립지역을 찾아내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²³

그럼에도 제주도 소요가 가라앉지 않고, 6·23 재선거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딘 군정장관은 6월10일 제주도의 재선거를 무기한 연기하는 남조선과도정부 행정명령 제22호를 발표했다.

22 실제로 그는 진압작전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힐 정도로 사태 진압에 자신감이 충만했다. 그는 6월2일 기자들에게 ①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주변도로에서 4km까지 경찰의 치안 확보 임무 수행 ② 제주도의 서쪽에서 동쪽까지 모조리 휩쓸어 버리는 경비대의 작전 진행 ③ 하루 두 번씩 제주도 일대 해안 순회 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현대일보』 1948. 6.3)

23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재선거의 무기연기를 발표한 5일 뒤인 6월15일 제주도를 방문한 쿨터(John B. Coulter) 부군정장관이 작성한 ‘제주도 소요관련 보고서’도 브라운 대령의 작전계획 및 실행을 보여주고 있다.²⁴ 이 비망록에서 브라운 대령은 전체 주민의 80%가 공산훈련을 받은 요원들 및 공산 주의자들과 연계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6월23일까지는 진정될 것’, ‘나의 사명은 진압 뿐’이라는 브라운 대령의 자신감은 제주도민의 80%가 공산주의자들과 관련돼 있다는 주장으로 변질됐다.

수석 고문관격의 브라운 대령 휘하로는 포티어스 소령과 리치 대위가 11연대에서 활동했고, 뱅스볼로 대위는 경찰 고문관으로 활동했다. 뱅스볼로는 특수부대 출신으로 제주도에 들어올 때는 양쪽 허리에 쌍 권총을 갖고 있어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²⁵ 제2차 세계대전 때 아시아의 전장터를 누비며 일본군과 전투를 치렀던 브라운 대령이었지만 사건의 ‘원인’을 치유하지 않는 제주도 사태는 물리력만으로 진압하기에는 한계를 노정시켰다.

2. 진압작전 참가와 제주도민 심문활동

1949년 7월1일 발족한 주한미군사고문단의 『고문관 편람』에는 고

24 이 비망록은 ① 국방경비대 4개 대대가 제주도의 동서남북에 각각 주둔하고 있다. 경찰은 해안지역 치안에 책임을 맡고 국방경비대는 해안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책임진다. ② 모든 대대가 동시에 공동목표로써 산간 고지대를 향해 내륙을 작전을 전개하는 경비대 지역의 수색은 완료될 예정이며, 군인들은 오늘 자신들의 부대로 돌아갈 예정이다(6월16일). ③ 이 작전에서 3000여명이 체포돼 심사를 받았다. 현재 여성 2명을 포함해 575명이 제주의 포로수용소에 있으며, 4개 심문팀의 심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문서는 미국 국무부에 보낸 문서에 포함됐다. 제24 군단사령부 정치고문관인 제이콥스(Joseph Jacobs)가 국무부로 보낸 대외비 문서로, 제이콥스는 이 비망록을 정독하면 제주도의 상황에 대해 보다 정확히 이해할 것이며, 공산분자들의 소요 원인을 이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Despatch No. 199, dated July 2, 1948, from American Political Advisor Joseph Jacobs to State Department.

25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문관의 임무를 ① 대한민국의 법과 질서 유지 ② 공격에 대비한 38선 방어 ③ 남한 내 파괴분자들의 진압과 섬멸 ④ 남한으로의 게릴라 침투 저지와 게릴라전의 격퇴 및 진압 ⑤ 사람, 상품과 물건의 한국 밀수출입, 해적 저지에 대비한 한국 해안의 보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문관들은 또 지휘하지 않고, 자문한다고 돼 있다.²⁶

그러나 실제로는 남한 내 게릴라 토벌작전에서부터 한국군의 지휘부 통제에까지 지속적으로 관여했다.

리치 대위는 1948년 5월 초부터 1948년 7월 말까지 제주도에서 고문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5·10선거 직후와 브라운 대령의 제주도 최고 지휘관 부임 및 진압작전, 박진경 연대장의 암살사건 당시 제주도에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1948년 5월 초 데이비슨(Lonnie Davidson) 중위를 포함한 고문관들과 함께 LST를 타고 인천항에서 출발해 제주도로 왔다.²⁷

그는 제주도에 파견되기에 앞서 경비대사령관 송호성으로부터 제주에서 일어난 소요에 대한 브리핑과 함께 가능한 한 빨리 전신주와 도로를 파괴하고 민간인 지도자들을 살해하고 있는 공산주의자들에게 대응할 것을 요청받았다.²⁸

당시 경비대사령부는 1948년 5월4일 수원에서 창설된 제11연대를 5월15일 제주도로 이동시키면서 기존의 제9연대를 제11연대로 통합하

26 Subj: Transmittal of copy of *Advisor's Handbook* of K MAG, from American Embassy, 28 Oct, 1949.

27 Matthew Hermes, *Jimmie Leach, Back in the day: Col. Jimmie Leach, a former U.S. officer, recalls the Cheju-do insurrection in 1948*, Beaufort Gazette (검색일 2007.7.20). 이하 'Back in the day'로 한다.

28 James H. Leach 인터뷰. 송호성은 광복군 출신이지만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 사령관으로서 그의 역할에 대해 미군 고문관들은 비판적인 입장이었다. 주한미사절단 대표 무초가 국무부에 보낸 여순사건 보고서에는 “송호성 준장이 적군을 향해 기관총을 쏘며 질주하고 나서는 아군을 향해서도 똑같이 했다. 반란군들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민간인들을 심문하는 바람에 군부대의 행진이 여러차례 멈췄다”며 그의 전술능력을 비판했다. Despatch No.81. Subj: Review of and Observation on the Yosu Rebellion, Nov 4 1948, John J. Mu,ccio, American Mission in Korea.

도록 하고, 제11연대장에 박진경 중령을 임명했다. 이 제11연대는 기존 제9연대의 1개 대대, 부산 제5연대의 1개 대대, 대구 제6연대의 1개 대대, 11연대가 수원에서 창설될 당시의 1개 대대와 연대 기간오월 등으로 구성됐다(제주4·3위원회 2003, 217). 리치 대위는 제11연대의 편성과 진압작전을 위해 제주에 들어오는 경비대에 대한 제주도민의 시각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제11연대의 편성은 재미있었어요. 송호성 사령관은 남한의 서북부 지역에서 조금씩 선발해 모았어요. 그는 이렇게 편성하면 병사들이 서로 잘 모를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신뢰하기가 더욱 쉬울 것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그들 사이에 공산주의자들이 있다면 서로 소통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규율이 있는 좋은 병사들이었지만 제주도민들은 특히 새로 오는 병사들이 침략군(invading force)처럼 보이는 LST에 타고 도착했기 때문에 이방인(outsiders)과 같이 그들을 불신했어요.²⁹

그의 말에 따르면, 제주도민들의 눈에는 제11연대 병사들이 ‘침략군’이었고, ‘이방인’이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진압군에 대한 제주도민의 거부반응을 리치 대위는 인식했다. 그는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제9연대가 모슬포에 있었는데, 미국의 주 방위군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었으며, 제11연대는 제주읍(제주시)에 주둔지를 정했다고 밝혔다.³⁰ 그는 송호성 사령관이 제9연대장 김익렬을 박진경으로 교체하고, 본토에서 새로운 부대인 제11연대를 파견한 것은 큰 도박(big deal)이었다고 평가했다.³¹

리치 대위는 자신을 포함해 고문관 3명과 미군 사병 3명 등 6명이

29 Back in the day.

30 James H. Leach 인터뷰.

31 Back in the day.

있었으며, 소형 연락기인 L-4기 2대와 낡은 목재 소화정을 해안 감시선으로 개조한 2척의 선박을 지휘했다.³²

제9연대가 제11연대로 합편했다고 해도 제9연대는 남았던 것 같다. 이는 리치의 발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는 박진경을 제9연대와 제11연대 등 2개 연대를 지휘했으며, 김익렬이 교체되기 전 박진경에게 제주도를 살펴봐야 한다며 연락기를 내줘 모슬포 제9연대에 가도록 했다.³³ 당시 김익렬은 제9연대에 있었고, 박진경에게 보고하고 있었다고 리치는 회고했다.³⁴

리치 대위는 고문관으로서 제주도에 배치된 자신의 임무에 대해 “중산간 지역 내륙에 숨어있거나 제주도를 둘러싼 해안마을의 농민과 관리들을 테러하고 있던 소규모 공산주의 동조자들의 습격과 혼란을 종식시키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³⁵ 리치 대위의 후임으로 온 웨슬로 스키 중위는 “리치 대위가 모든 지역에 나갔다”고 할 정도로 리치 대위는 경비대 작전에 적극 개입했다.³⁶

리치 대위는 앞서 언급한 콜터 부군정장관의 보고서에 나온 제주도민 체포와 심문에도 참여했다. 리치 대위는 5월 말까지 4000여명을 심문했고, 이 가운데 3000-4000여명을 ‘공산인민군’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무장된 이는 10%도 되지 않았다고 회고했다.³⁷

리치 대위는 제11연대장 박진경과 친했고, 해안마을 보호작전을 지

32 Back in the day.

33 James H. Leach 인터뷰. 리치 대위는 박진경이 돌아오자 자신에게 “한국인들이 우리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적이다”라고 쪽지에 적어줬으며, 그 메모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Back in the day.

34 제11연대장 박진경이 제9연대를 지휘했다는 발언은 검토가 필요하다. 김익렬은 조선경비대총살여부 특명 제61호(1948년 5월10일)에 따라 1948년 5월6일부로 서울총사령부로 전입됐다는 기록(제주4·3위원회 2002e, 82)이 있지만 당시의 교통편과 연락체계의 미흡 등으로 곧바로 이동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35 Back in the day.

36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37 Back in the day.

원했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 주민들을 보호지역(protected area)으로 이동하도록 지원하는 한편 '폭도'들을 체포하거나 마을 주민들에 대한 살해 종식, 내륙지역의 반란 분쇄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는 때때로 박진경과 함께 제11연대가 중산간 지역으로 들어가도록 해 소규모 아지트에서 '반란군'(rebel)들을 찾아내기도 했다.³⁸

1948년 6월18일 새벽 박진경 연대장 암살사건은 경비대 내부는 물론 미군 고문관들에게 상당한 충격이었다. 경비대와 경찰은 즉각 행동에 들어가 딘 군정장관과 로버츠 장군, 경찰 관계자들이 박 연대장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도착했다.³⁹

어느 날 아침, 경비병이 브라운과 나에게 와서 박 연대장이 살해됐다고 했어요. 우리가 달려가 보니 박 연대장이 바닥에 누워 있었고, 총알이 바닥을 관통했어요. 즉시 프라이어 대령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딘 군정장관과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조병욱 경무부장이 왔어요. 그들은 무기를 검사하기 위해 탄도조사팀을 데려왔어요.⁴⁰

박진경 암살사건으로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 준장은 제9연대를 무장 해제시키는 등 강경정책을 취했다. 박 연대장이 암살되자 최경록 중령이 연대장으로 부임했다.

웨슬로스키 중위는 박진경 암살사건 당시 대대 고문관이었던 점으로 미뤄 6월 초·중순께 제주도에 파견된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대 고문관의 역할에 대해 당시 대부분의 경비대 장교들은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대대장에게 자문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내가 아는 모든 것은 야전에서 부대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적절한

38 Back in the day.

39 Back in the day.

40 James H. Leach 인터뷰.

대형과 적절한 보안수단을 취하는 방법, 휴식을 취할 때는 한 곳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동하면서 취해야 한다는 것, 부대 천막은 가깝게 함께 설치해야 한다는 것 따위입니다. 거리를 유지하는 것도 적이나 게릴라들이 침입할 때는 효과적입니다. 이런 일들이 나의 역할입니다.

웨슬로스키 중위가 처음 제주도에 파견됐을 때 제주도에는 브라운 대령과 포티어스 소령, 리치 대위, 뱅스볼로 대위 등이 있었다고 한다. 웨슬로스키 중위는 제주도에 부임한지 3주일 정도 있다가 브라운 대령과 포티어스 소령, 뱅스볼로 대위 등이 떠났다고 밝혔다.⁴¹

리치 대위는 최 연대장이 “매우 만족스럽게 임무를 수행해 그들과 함께 활동하는 것이 매우 즐거웠다”고 말했다. 제주도 소요사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자 송호성 사령관은 제11연대의 대부분을 인천으로 철수시켰다. 리치 대위도 이들과 함께 철수하는 한편 제9연대는 송요찬 연대장이 맡았다.⁴² 리치 대위는 “우리는 정말로 공산주의자들의 시도를 진압했다”고 회고했다.⁴³

3. 미군 고문관과 초토화작전

제11연대 대대 고문관을 맡았던 웨슬로스키 중위는 7월 하순 제9연대 고문관으로 또다시 제주도에 파견됐다. 그는 1948년 7월 제11연대와 함께 수원으로 이동한 뒤 통위부 고문관 로버츠 장군에게 신고하러 갔다. 그 자리에서 로버츠 장군은 웨슬로스키 중위에게 제주도 현지 상황을 물어보고 곧바로 그에게 연대 고문관으로 제주도로 다시 내려가도록 했다. 웨슬로스키 중위는 제주도 상황이 지하로 들어갔으

41 Charles L. Wesolowsky 인터뷰.

42 James H. Leach 인터뷰.

43 제11연대가 경기도 수원으로 이동한 것은 1948년 7월24일이다(제주4·3위원회 2002e, 103). 리치 대위는 자신이 인터뷰와 회고담을 통해 2-3차례에 걸쳐 제주도를 떠난 것이 9월이었다고 말했다.

나 제거되지 않았다고 생각했고, 그의 보고를 들은 로버츠 장군은 제주도 사태 진압을 웨슬로스키 중위에게 일임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웨슬로스키 중위는 수석 고문관(연대 고문관)이 됐고 휘하에 2명의 중위를 대동하고 제주도에 다시 파견됐다. 웨슬로스키 중위의 서명이 들어간 제9연대 전투일지를 보면 그는 적어도 1948년 7월 21일 이전에 제주도에 다시 파견됐다.⁴⁴

그가 다시 제주도에 파견됐을 때는 제9연대장이 송요찬이었다. 그는 자신의 임무를 “반란을 진압하고, 선동자를 섬멸하며, 민간정부를 회복하는 것이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섬멸에 관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웨슬로스키 중위도 브라운 대령의 ‘원인에는 흥미가 없다. 나의 사명은 진압뿐이다’라는 발언처럼 제주도 소요에 대한 시각은 공산주의자들을 진압하고 섬멸하는 것이었을 뿐 ‘원인 치유’는 관심 밖의 사안이었다.

웨슬로스키 중위는 경비대와 함께 나가 제주섬을 가로 지르는 소탕 작전이나 한라산에서 작전을 벌이는 등⁴⁵ 진압작전에 적극 참가했다.

그때 경비대가 매우 적극적으로 한라산까지 작전에 나섰다기 때문에 희생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광범위한 소총 사격술 훈련과 부대단위로 병사들을 집합시키고, 부대 간격을 좁히며, 통솔 하에 훈련 지휘관들로 하여금 부대를 산개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참가했지요. 나는 한라산 정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높이까지는 올라갔습니다. 훈련장 같은 것이 있고, 탄약과 무기를 은닉했다고 하더군요.

그는 한라산에서 작전을 벌였지만 ‘적’으로 간주할만한 사람들의 징

44 제11연대가 최종적으로 제주도를 떠난 것이 7월24일이고, 그의 보고서가 7월21일 작성된 점을 고려하면, 제11연대의 철수는 단계적으로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45 그가 제주도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보면 한라산 윗세오름(해발 1700m)까지 작전을 벌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후는 전혀 찾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진압작전을 위해 경비대와 함께 한라산 부근까지 함께 갔는가 하면, 일부 마을에 대한 작전에도 참가했다.

나는 마을에 진입해 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대형을 갖추고 마을을 통과해 행진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또 2척의 소화정(YMS)을 지휘했는데 15-16피트 정도 되는 나무로 된 작은 배였습니다. 우리는 1개 중대를 승선시키고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제주읍 반대편의 작은 마을이었습니니다. 그곳 주민들은 공산주의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거기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죠. 군사적이라기 보다는 정치적 행위였습니다.

웨슬로스키 중위가 제9연대 고문관으로 활동하던 막바지 시기인 1948년 8월6일 켈소 중위가 제주도에 대대 고문관으로 발령받았다. 그는 10월 광주로 이동할 때까지 모슬포 주둔 대대 고문관으로 활동했다.⁴⁶ 켈소는 대대 고문관으로서의 활동의 주요 부분은 무기와 장비의 적절한 보수와 유지였지만, 제주도 주둔 제9연대가 전투에 참가할 정도로 훈련이 잘 되지는 않았다고 기억했다. 그는 모슬포 주둔 대대가 해안에서 멀리 벗어나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내가 아는 한 공산 게릴라들이 산간지역의 대부분을 장악했어요. 하지만 내가 배속된 대대는 해안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게릴라와의 교전 시도를 관찰한 유일한 시기는 해안을 따라 움직이는 무엇인가가 있을 때였어요. 나는 선두그룹과 함께 있었는데, 야간이었어요. 많은 병사들이 적이라고 생각한 물체를 사격했는데, 사격하고 있었던 물체는 빨랫줄에 걸려있는 옷이었어요. 그만큼 그들의 훈련이 빈약했다는 것을 알았죠.⁴⁷

46 당시 일기를 썼던 켈소 중위는 자신의 제주도 배치 일자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전임자는 모르겠다며 자신이 모슬포에 주둔했던 최초의 대대 고문관으로 기억했다.⁴⁸ 그는 경비대 장교들과 날마다 비공식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식당에서 그날의 활동을 논의하고 계획했다. 하지만 그는 당시 제9연대장이었던 송요찬을 모르겠다고 밝혔다.⁴⁹

제9연대 전투일지는 웨슬로스키 중위가 1948년 8월9일까지 작성했다. 이어 8월11일에 도착한 버제스(F. V. Burgess) 대위가 당일부터 12월6일까지 제9연대 전투일지를 작성했다. 웨슬로스키는 1948년 8월18일 서울로 이동했다.⁵⁰ 버제스 대위가 제9연대 고문관으로 활동한 시기는 송요찬의 제9연대가 초토화작전을 전개한 시기였다.⁵¹

피쉬그룬드 중위는 1948년 8월15일 중위로 한국에 도착해 임시군 사고문단에 배속된 뒤 1948년 9월 제9연대 부고문관으로 제주도에 부임했다.⁵² 그는 제주도에 부임하기 전 제주도의 소요를 알고 있었으나 어느 누구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밝혔다.⁵³ 버제스 대위가 떠나자 그는 12월 초부터 연대 고문관으로 활동했다.

그는 자신의 임무에 대해 한국군에게 보급품을 전달하고 훈련을 지원하는 한편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국군의 작전을 자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사, 정보, 작전, 군수 등 모든 참모들을 방문하고 그들

47 켈소가 필자에게 보낸 편지, 2001. 9.6.

48 켈소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1. 10.1.

49 켈소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1. 10.1; 11.21. 제주읍 주둔 제9연대 본부와의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연대장을 모른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조셉 중위도 제9연대 소속 대대에 근무했으나 거의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50 *9th Regiment Daily Activities*, 18 August 1948.

51 버제스는 초토화작전의 계기가 됐던 송요찬의 포고령 발표(1948년 10월17일)와 계엄령 선포(1948년 11월17일) 시기 연대 고문관을 지낸 고문관이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의 활동에 대한 기록은 발굴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9연대 전투일지에는 그가 8월11일부터 12월8일까지 전투일지를 작성한 것으로 나와 있다.

52 피쉬그룬드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1. 8.14.

53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과 상의했다. 또 한국군의 회의에 참석해 인사와 군수, 정보분야 등에서 미군 방식을 도입하도록 하려고 노력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어떠한 전투활동에도 관련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송요찬과 초소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는 피쉬그룬드 중위는 “해안변은 우호적인 주민들이 있는 곳이고, 내륙은 적들이 있는 것으로 간주됐다”고 말했다.⁵⁴

제9연대의 임무는 제주도 주변의 도로를 방해물을 제거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 임무를 수행했어요. 한라산 중심으로 섬의 내륙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누구든지는 아니겠지만 적으로 간주됐어요. 확실히 그들은 주민들로 하여금 해안마을로 이주하도록 알렸습니다.

그의 이러한 발언은 송요찬 연대장의 10월 포고문 내용과 일맥상통한다.⁵⁵ 피쉬그룬드 중위는 이러한 사실과 중산간 지역 주민들을 소개한 사실을 인지했다.⁵⁶

피쉬그룬드 중위는 혼자서 또는 송요찬과 함께 성조기를 매단 지프를 타고 일주일에 한차례 정도 제주도를 돌았다. 그러나 그는 제9연대의 전투를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했다.

한번은 제주도 북쪽 지역이었는데,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마을에 제9연대 소속 몇 명의 한국군들이 있었어요. 정찰활동을 하는 것처럼 길가 양쪽으로 총을 들고 걷고 있었어요. 한국군들은 내 걸을 스쳐 지나

54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55 송요찬 연대장은 1948년 10월17일 자신의 명의로 “10월20일 이후 군 행동 종료기간 중 전도 해안선부터 5km 이외의 지점 및 산악지대의 무허가 통행금지를 포고”하고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그 이유 여하를 불구하고 폭도배로 인정하여 총살”에 처할 것이라는 포고문을 발표했다(『조선일보』 1948. 9.20)

56 고문관의 임무가 경비대의 작전을 자문하는 것임을 감안하면, 포고문의 내용이 중요한 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를 고문관과 협의하지 않았거나, 고문관이 모르게 이 포고문의 내용을 실행에 옮겼다는 것은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갔는데, 내가 본 유일한 전투였습니다. 전투 경찰 대형으로 총을 들고 정찰하는 모습이어서 전투였지요. 나는 그곳에 개입하는 것을 원치 않아 나왔어요. 그들은 아마도 그곳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찾는 것 같았어요.

고문관들의 역할은 한국군에 ‘자문’하는 것이었지만, 그는 한국어를 못했고, 한국군은 영어를 못했기 때문에 자신은 단지 ‘명목상의 두목’(figurehead), 즉 ‘진짜 고문관’이었다고 강조했다. 피쉬그룬드 중위는 “송요찬이 작전에 나갈 때 자신과 논의한 적이 없다”며 “그에게 보급품과 탄약을 지원하는 미군 고문관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의 제주도 주둔 기간은 그의 선임이었던 버제스 대위와 함께 제주4·3의 진압과정에서 가장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났던 시기였다. 그는 무기수와 사망자 숫자의 불일치 때문에 송요찬에게 두 가지를 놓고 무기를 보고 싶다고 말했다고 회고했다.

오전 회의에서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무기가 노획됐는지 말하곤 했습니다. 항상 무기보다 죽은 사람의 숫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무기를 보자고 요청하기도 했고, 때로는 무기를 볼 때도 있었지만 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의 보고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당신들은 나에게 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⁵⁷

피쉬그룬드 중위가 소속된 제9연대가 제주도 작전을 끝내고 제11연대와 교체되자 그도 함께 이동했다. 그의 후임자는 제11연대 고문관으로 들어온 사브레스키(Sabreski) 중위였다. 피쉬그룬드는 1949년 1월 대위로 진급해 여순사건의 여파로 설치된 남원지구전투사령부 정일권 준장의 고문관으로 파견됐다.

57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IV. 미군 고문관들의 제주4·3 인식

1. 제주4·3과 북한·소련과의 연계성

1948년 남한 내 좌익세력은 한국정부의 적이었고, 체제 밖의 세력이었다. 정부는 평양과 모스크바의 공산주의자들이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고 확신했다(정병준 2006, 237). 남한에 주둔했던 미군도 한국정부의 확신과 다르지 않았다.

리치 대위는 제주도를 합법정부(legitimate government)를 위협하는 반란을 저지하기 위한 합법적 군사작전(legitimate military action) 지역이었다고 술회했다. 그는 반도(insurgent)들은 행정기관이 여전히 친일파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들이 농민들로부터 세금을 강탈하고 있다고 믿었다는 것은 사실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이 마을을 방화한 것이지 경비대 병사들이 방화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⁵⁸

웨슬로스키 중위는 김달삼을 '계릴라 지도자'이자 '최고의 공산주의 조직가'이며 '두통거리였고, 성가진 존재'로 묘사했다. 그는 고문관으로 근무할 당시 김달삼이 활동중이었고, 어떻게 빠져나갔는지는 모르지만 나중에 육지로 갔다고 말했다. 대대 고문관인 조셉 중위와 켈소 중위도 김달삼이 육지로 나간 뒤 사태가 진정됐을 때 제주도에 왔다고 말했다.⁵⁹

웨슬로스키 중위는 외부에서 극소수의 선동자들이 들어왔고, 공산주의자들이 제주도에 자체 군사력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지만,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대대 고문관 출신의 켈소 중위는 자신이 근무하던 시기는 1948년 4월3일 시작된 '반란'이 잠잠해 진 때였다고 기억했다. 하지만 그때에도

58 Back in the day. 그가 얻을 수 있는 정보원은 경비대가 거의 유일했을 것이며, 그들로부터 정보를 얻었다면 '공산주의자'들이 방화했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9 실제로 김달삼은 1948년 8월2일 제주를 빠져 나갔고, 켈소는 8월6일 제주에 왔다.

조직화된 공산주의자들이 있었고, 마을주민들은 북한 선거에 투표하도록 요구하는 게릴라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고 말했다.

초토화작전 시기 제주도에서 활동한 피쉬그라운드 중위는 당시 제주도 상황을 “소문에 따르면 평양에서 지령을 받는 제주도 공산주의자들이 촉발한 문제로 한국정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공산주의자들은 게릴라전술을 채택했다”고 말했다.⁶⁰ 그는 소련의 10월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1948년 11월1일 한라산을 중심으로 중산간 지역에 곳곳에 봉화불이 타올라 무서웠던 것이 기억난다고 했다.⁶¹

그는 또 커밍스가 제주도 문제에 대해 미국의 책임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내가 아는 견지에서 위협과 공포전술을 통해 제주도민들을 선동한 세력은 공산주의자들과 북한이었다”고 반박했다.⁶² 그는 그 예로 훈련받은 공산주의 스파이들이 제주도로 들어왔고, 유엔이 후원한 합법선거를 저지하려 했으며, 마을에 있는 지서를 공격하고 공포감을 확산시키려고 한라산 기슭을 따라 봉화를 밝히는 등의 일을 했다고 설명했다.⁶³ 하지만 그도 제주도 사건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것은 들었을 뿐이지, 증거를 본 적은 없다고 했다.

피쉬그라운드 중위가 제주도에 부임한 것은 김달삼이 이미 제주도를 떠난 뒤였지만, 그는 ‘공산주의 지도자’ 김달삼이 소련 잠수함을 이용해 제주도에 침투한 한국계 소련인으로 기억했다.⁶⁴

1948년 제주4·3의 중요한 시기에 제주도에 근무했던 미군 고문관

60 피쉬그라운드는 1950년 봄철 강릉지역에서 죽은 뒤 신원확인을 위해 서울로 보내진 효수된 김달삼의 사진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61 피쉬그라운드가 밀레트에게 보낸 편지, 1999. 4.19.

62 커밍스는 1998년 제주4·3 제50주년을 맞아 제주 출신 재일동포들이 주최한 일본의 4·3강연회에서 미국의 책임을 강하게 거론했다. *The Question of American Responsibility for the Suppression of the Chejudo Uprising*,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April 3, 1948 Chejudo Rebellion, Tokyo, March 14, 1998.

63 피쉬그라운드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1. 10.22.

64 피쉬그라운드가 밀레트에게 보낸 편지, 1997. 6.2.

들은 제주4·3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에는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그들은 제주4·3을 북한이나 소련과 연계됐다고 생각했으나,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다. 초토화작전 시기 고문관이 유격대 지도자 김달삼을 소련계 한인으로 인식할 정도로, 고문관들은 제주4·3이 북한이나 소련과 연계돼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부정확한 정보의 획득이나 인식은 제주도민들을 '반공'의 명분 아래 척결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2. 미군 고문관들의 대량학살 인식

1948년 제주도 주둔 경비대에 배치된 미군 고문관들 가운데 중산간 지역에 대한 소개령과 계엄령 선포, 초토화작전 등이 전개된 시기에 있었던 고문관은 버제스 대위와 피쉬그룬드 중위였다.

리치 대위는 1948년 5월부터 9월까지 제주도에 주둔하는 동안 대량학살을 목격한 적이 없고, 중산간 마을 주민이 자신의 정찰병 가운데 한명에게 마실 물을 주었다가 가슴에 죽창이 찔려 죽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경비대가 사적 재판(kangaroo court)을 열고 소규모 아지트에서 발견한 반도들 가운데 몇 명을 총살했다”고 했다. 경비대와 함께 진압작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리치 대위의 발언은 ‘목격하지 못했다’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경비대가 사적 재판을 열고 총살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다.

리치 대위는 또 경비대 병사들이 포로들을 구타하거나 살해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으며, 자신도 45구경 권총을 지니고 있었지만 사용한 적은 없었다고 했다.⁶⁵

웨슬로스키 중위도 사망한 민간인을 본 적이 거의 없으며 “그곳에 갔을 때는 이미 진압된 때였다”고 말했다.

65 Back in the day.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학살 말입니까? 제9연대가 민간인들을 죽였나요? 이는 내가 철수한 이후가 분명해요. 나는 제11연대와 함께 철수했다가 들어와서 제9연대와 잠시동안 같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러한 것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이들(G-2)이 어디서 이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모르겠군요. 민간인에 대한 대량학살? 나는 전혀 이해할 수가 없군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는 심지어 “공동묘지를 지나간 적이 있는데, 새로 만든 묘지들은 보지 못했다”며 “기껏해야 100여기 정도의 무덤을 본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주한미군사령부 G-2 보고서에 나온 제9연대가 대량학살 프로그램을 채택했다는 보고서⁶⁶와 관련해 “나는 모른다”고 하면서도 “송요찬이 문제를 일으켰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주도의 미군 정보담당자들이 약간 과도한 열정을 갖고 공산주의자들과 싸우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웨슬로스키 중위의 제주도 체류기간은 제주도인민유격대의 공격이 소강상태를 보였던 시기다.

1948년 본격적인 대량학살이 일어난 것은 버제스 대위와 피쉬그룬드 중위가 제9연대 고문관으로 있을 때였던 10월 하순 이후다.⁶⁷

그는 그러나 커밍스가 제주도의 대량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다룬 논문과 관련해 자신은 그가 다룬 5개월 동안 제주도에 있었으며, “야만성은 양쪽에서 가해졌다”고 주장했다.⁶⁸ 다시 말해 공산주의자들만이 아니라 진압세력인 경비대나 경찰의 행위도 야만적이었던 것이다.⁶⁹

피쉬그룬드 중위는 전임자와 제주도에 있던 가톨릭교회의 사제들인

66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67 피쉬그룬드가 밀레트에게 보낸 편지, 1997. 6.2.

68 피쉬그룬드가 밀레트에게 보낸 편지, 1999. 4.19.

69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라이언(Ryan), 도우슨(Dawson), 스위니(Austin Sweeny) 신부 등으로부터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들을 때까지는 제주도에 있는 불쌍한 주민들이 처한 위험한 상황을 몰랐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정부는 제주도민과 함께 외부세력으로 반란을 진압하려고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민들은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현대 정치철학의 한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회고하는 한편 “가난한 농민들과 어민들이 밧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의 발언을 보면, 제주도민들이 한 가운데서 고통을 겪은 것은 이 데올로기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국 군에 민주적 원칙과 법의 지배를 사용할 것을 강력하게 자문했다”고 말했다.⁷⁰ 초토화작전 시기 하루에 수십명이 사살됐다는 보고를 썼던 피쉬그룬드 중위가 사망자를 보지 않았다면 제주도민들이 고통을 겪었던 것은 제주도의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G-2 보고서와 제9연대 전투일지는 1948년 12월의 작전활동에서 대량 살상과 노획한 ‘작’들의 무기 사이에 상당한 차이를 노정시켰다. 이는 군·경의 과잉진압에 따른 무고한 제주도민들에 대한 대량학살이라는 비판을 가져왔다. 피쉬그룬드 중위도 사망자수와 노획한 무기의 숫자 사이의 불일치성을 발견했다.

나는 전투교전에서 죽은 사람 숫자와 노획한 소수의 무기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나는 절대 정확한 답변을 들은 적이 없지만, 나의 의문 제기 이후 나온 보고서들은 사망자수와 무기 숫자가 보다 근접한 수치로 반영됐다는 데 주목했다. 이것은 송요찬의 까다로운 문제(touchy point)였다. 나는 그가 지휘관들에게 무기를 가진 사람들(반도들)을 추적하라고 명령했다고 믿었다.⁷¹

70 피쉬그룬드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1. 10.22.

71 피쉬그룬드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1. 11.21.

그는 항상 무기 숫자보다 사망자 숫자가 많은 이유를 묻자 그들의 답변은 무기를 찾을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이 때문에 그는 송요찬에게 “당신의 보고서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무기를 보여줘야 한다”고까지 말했다. 피쉬그라운드 중위는 제9연대 전투일지를 통해 많은 사살자가 발생했음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됐다는 보고는 어떤 것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⁷² 그는 또한 제주도에 있는 동안 경찰의 가혹행위 소문을 듣기는 했지만 그러한 내용의 보고서를 본 적은 없다고 했다.

1948년 서울의 고문단사령부에 있었던 고문관 새클턴(Robert G. Shackleton)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대량학살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말했다. 그는 그 시기에 제주도에서 수천여명의 학살이 일어났다면 그 정보를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그와 같은 중요한 사건들은 미군 당국의 주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미군 당국은 대량학살과 관련해 어떠한 행동을 확실히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⁷³

새클턴은 하루에 수십명, 많게는 100명 이상이 사살되는 ‘중요한 사건들이 미군 당국의 주목을 피할 수 없었을 것이고, 미군 당국은 어떠한 행동을 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서울의 미군사고문단은 제주도에 파견된 고문관들로부터 제주도의 상황을 보고받았다. 제9연대의 전투일지에는 하루에 수십여명의 ‘적’이 죽어간 사실과 노획한 ‘무기’가 극소수의 일본제 총·검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담겨 있었지만, 미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미군 고문관들의 진압군 지휘관 평가

제주4·3 봉기 당시 제9연대장이면서 유격대 쪽과 평화협상을 주

72 Harold S. Fischgrund 인터뷰.

73 새클턴이 필자에게 보낸 편지, 2002. 1.8.

도했던 김익렬 연대장은 ‘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그와 함께 근무했던 미군 고문관은 김익렬 연대장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

리치 대위는 제주도에 부임하기에 앞서 경비대사령부 송호성 사령관으로부터 김익렬 연대장을 비효율적인 지휘관(ineffective leader)이며, 제9연대는 반란에 동정적인 병사들이 많다는 얘기를 들었다.⁷⁴ 당시 제주도에 주둔했던 제9연대와 연대장에 대한 경비대사령부의 사전 정보는 리치 대위가 제주도에서 제9연대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리치 대위는 모슬포에 주둔한 제9연대가 미국의 주 방위군과 다를 바 없을 정도로 비효율적이어서, 그들은 체포활동조차 하지 않았고, 피해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⁷⁵

리치 대위는 김익렬 연대장으로부터 직접 제주도에서 병사들을 모집할 수 없어 정원을 채우려던 계획을 포기했고, 제주도민들이 자신과 거래를 하지 않아 지역에서 보급품을 얻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또 김익렬 연대장이 박진경 암살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제주도를 떠났는데, “우리는 그가 무능(incompetent)했기 때문에 면직시켰다”고 회고했다.

그는 4월3일 유격대의 무장봉기가 일어났을 때 김익렬 연대장이 조기 진압을 하지 않아 사태가 확대된 것으로 생각했다. 리치 대위는 “1948년 4월3일 사건이 일어났을 때 김익렬은 연대장이었다”면서 “그는 게릴라들로부터 마을주민들과 농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대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김익렬 연대장은 유고에서 “딘 장군은 박진경 중령에게 극비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그것은 말할 것도 없이 제주도 전역에 대한 초토작전 명령이었다”고 밝혔다(제민일보 4·3취재반 1994b, 344). 이에 대해 리치 대위는 “나는 딘 장군의 명령을 박진경에게 전달하는 연락관이었다”며

74 Back in the day.

75 James H. Leach 인터뷰.

“그러한 내용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그는 박진경 연대장에 대해서는 매우 호의적이었다. 리치 대위는 박진경에 대해 “교양있고, 영어를 할 줄 아는 교육받은 군인이었으며, 내가 알고 있는 어느 누구보다도 현명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박 연대장은 태평양전쟁 당시 제주도에서 일본군 소위로 조선인 징병자들로 구성된 부대를 지휘했다. 리치 대위는 “박진경과 또다른 경비대 장교가 일본군 출신으로 그들은 보병전술과 게릴라전술을 완전히 이해했다”며 박진경을 위대한 인물(great man)이라고까지 평가했다.⁷⁶

박진경 암살사건 이후 제11연대장으로 부임한 최경록, 그리고 제9연대장 송요찬과 함께 활동한 웨슬로스키는 “최 연대장이 제주도에 그렇게 많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다”며 최경록과의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술회했다. 웨슬로스키는 최경록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고, 그를 좋은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웨슬로스키 중위는 송요찬을 ‘매우 강인(very strong)하고, 매우 거친(very tough)’ 연대장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송요찬의 그러한 성격이 자신에게 필요했던 점이었다고 회고했다.

피쉬그룬드 중위는 제주도 근무 내내 송요찬과 활동했다. 거의 날마다 송요찬과 만나 대화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는 그는 “송요찬은 정말 유능하고 실력있는 지휘관이었다”며 ‘매우 강인한 인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의 대위는 바빴다”고 덧붙였다. ‘그의 대위’는 서종철로 송요찬 연대장과 함께 제주4·3사건의 진압과정에서 초토화작전의 한 가운데에 섰던 인물이다.⁷⁷ 그도 웨슬로스키처럼 송요찬을 매우 거친(very tough)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76 James H. Leach 인터뷰.

77 송요찬 연대장에 가려 서종철의 이름은 정부의 『신상조사보고서』에서도 찾기 어렵지만 제9연대에 있었던 미군 고문관들은 서종철의 역할에 주목했다. 피쉬그룬드 중위는 제주4·3사건의 한 가운데 서종철 대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서종철이 당시 제9연대 부연대장겸 작전을 담당해 모든 작전현장에 나갔었다고 밝혔다.

송요찬 연대장에 대한 미군 고문관들의 생각은 그가 강하고 거칠며 그러한 점이 고문관에게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제주도 현지 고문관들의 평가는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장군으로 하여금 이승만 대통령과 이범석 국방장관, 채병덕 참모총장에게 1948년 12월18일 보낸 서신에서 “송요찬 중령은 섬 주민들의 당초의 적대적인 태도를 우호적·협조적인 태도로 바꾸는 데 대단한 지도력을 발휘했다”고 격찬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신문과 방송 그리고 대통령의 성명에 의해 일반에 널리 알려져야 한다”고 권고하는 계기를 만들었다.⁷⁸ 1948년 11-12월 ‘반도’들의 활동이 거의 없었으나, 제9연대가 민간인들에 대한 대량 학살 프로그램(program of mass slaughter among civilians)을 채택했다는 주한미군사령부의 정보보고⁷⁹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현지 고문관들과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장군, 한국정부의 수뇌부는 그의 ‘지도력’을 높게 평가했다.

V. 맺는말

제주4·3의 본격적인 봉기, 5·10 총선거와 6·23 재선거의 무기연기, 한국정부 수립, 여순사건의 발발, 유엔의 한국정부 승인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난 1948년은 제주도의 역사상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 중요한 시기를 제주도에 주둔했던 미군 고문관들은 날날이 목격했다. 미군 고문관들은 제주4·3의 진압과정에서 작전 계획에서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자문하고, 직접 작전지역에 들어갔다.

제주도에 배치된 미군 장교들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아시아나 유

78 "Operation on Cheju Do," December 18, 1948.

79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No. 1097, April 1, 1949.

렵의 전쟁터에서 전투를 치른 경험이 풍부한 군인들이었다.

미군 고문관들은 제주4·3을 북한이나 소련과 연계돼 있다거나 제주도 인민유격대 사령관 김달삼을 소련계 한인으로 생각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증거를 본 적은 없었다. 그만큼 이들의 시각은 한국정부의 남한 내 좌익에 대한 시각과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

미군 고문관들 가운데 제주도민 대량학살을 아는 고문관은 없었다. 그러나 대량학살이 이뤄진 초토화작전 시기의 고문관들은 제주에서 벌어지고 있는 진압작전의 전과를 사령부에 보고했다. 당연히 서울의 미군사고문단 사령부는 제주도에서 일어나는 유혈사태를 충분히 알고 있었다. 하지만 대량 인명피해를 가져온 초토화작전의 한 가운데 서 있던 제9연대장 송요찬에 대해 제주도 주둔 미군 고문관들과 군사고문단장 로버츠 장군이 한결같이 그를 ‘강인한’ 군인으로 격찬한 것은 이들의 인식을 보여준다. 미군 고문관들의 역할은 ‘자문할 뿐’이라고 했지만, 자문을 받은 경비대의 작전은 초토화작전과 제주도민 대량학살로 나타났다. 미군이 제주도에서의 대량학살을 알았다면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는 한 고문관의 발언과는 달리, 제주도에서는 ‘반공주의’의 명분 아래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

미군 고문관들 가운데 제주4·3의 발발원인에 관심을 가진 장교는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의 싸움’, ‘공산주의 섬멸’에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대다수의 제주도민들이 공산주의자들과 연계가 있었다고 간주했다.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그들은 경비대의 작전수립과 실행에 깊숙하게 개입했다. 그러나 제주도에 파견됐던 미군 고문관들의 역할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제주4·3의 전개과정, 특히 초토화작전 시기에 있었던 내륙지역을 적성지역으로 간주한다는 송요찬 연대장의 포고령 선포와 계엄령 선포 과정, 귀순자에 대한 집단학살 등에서 서울의 고문단사령부와 제주도의 현지 고문관들의 역할에 대한 자료의 발굴과 분석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안정애. 1996. “미군정기 군사고문단의 성격과 기능에 관한 연구 - 한국군 창군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군사』 제32호.
- 염미경. 2003. “전쟁연구와 구술사”, 『전쟁과 사람들-아래로부터의 한국전쟁연구』. 한올아카데미.
- 정병준. 2006. 『한국전쟁: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 제민일보사. 1994. 『4·3은 말한다』 b. 전예원.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2. 『제주4·3사건자료집』 e. 동위원회.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2003.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 동위원회.
- 제주4·3연구소. 2001. 『제주4·3자료집Ⅱ』. 제주: 각.
- 짐 하우스만·정일화. 1995. 『한국 대통령을 움직인 미군 대위』. 한국문원. *9th Regiment Daily Activities*.
- KMAG. 1955. *The United States Military Advisory Group to the Republic of Korea: KMAG, 1945-1955*. Tokyo: KMAG Public Information Office
- Robert K. Sawyer. 1962. *Military Advisors in Korea: KMAG in Peace and War*. Washington D.C.: Office of the Chief of the Military History.
- William F. Dean. 1954. *General Dean's Story*. New York: The Viking Press.
- “Disturbances on Cheju Island.” Despatch No. 199. dated July 2, 1948. from American Political Advisor Joseph Jacobs to State Department.
- Hq. USAFIK, G-2 Periodic Report.

인터뷰

- Charles L. Wesolowsky(당시 제11연대 대대 고문관·제9연대 고문관). 2001.10.
- Edwin M. Joseph(당시 제9연대 대대 고문관). 2001.10.
- Harold S. Fischgrund(당시 제9연대 고문관). 2001.10.

James H. Leach(당시 제9연대 고문관). 2007.12.

서한 및 이메일

새클턴이 필자에게 보낸 편지. 2002.1.8.

웨슬로스키가 밀레트에게 보낸 편지. 1996.9.16.

켈소가 필자에게 보낸 편지. 2001.9.6

켈소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1.10.1; 11.21.

피쉬그룬드가 필자에게 보낸 이메일. 2001.8.14; 2001.10.22; 2001.11.21.

피쉬그룬드가 밀레트에게 보낸 편지. 1997.6.2; 1999.4.19.

신문

New York Herald Tribune

서울신문, 조선중앙일보, 현대일보

인터넷

<http://cbi-theater-6.home.comcast.net/~cbi-theater-6/1ptg/1ptg.html> (검색일 2011.1.20)

http://articles.dailypress.com/2007-04-25/news/0704250116_1_franklin-historical-society-classmates-turkey (검색일 2011.2.18)

<http://jimmieleach.us> (검색일 2011.2.22).

Matthew Hermes, Jimmie Leach, 2006. *Back in the day: Col. Jimmie Leach, a former U.S. officer, recalls the Cheju-do insurrection in 1948.*
Beaufort Gazette

투 고 2011.03.11

심 사 2011.04.01

확 정 2011.04.08

ABSTRACT

**The Experience and Recognition of U.S. Military
Advisors about Jeju 4·3:
Focusing on the advisors who were assigned
to Jejudo Constabulary in 1948**

Huh, Ho-Joon

(Special Researcher, Peace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experience and the recognition of U.S. military advisors who were assigned to the Jeju Constabulary during the process of Jeju 4·3 which was occurred during the U.S. Military Government. For these purposes, I used the interviews of the former advisors, their letters, e-mail, and memoirs.

The year of 1948 was the most important year during the process of Jeju 4·3. That's why the armed uprising, the first general election after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the establishment of the South Korean Government, Yosu-Suncheon Uprising and the scorched-earth operation were occurred in that year. Most of the advisors who were assigned to Jeju Constabulary were engaged into the war in Europe and Asia during the World War II. The advisors were dispatched to the constabulary which was stationed in Jeju island and participated in the planning and execution of Jeju 4·3.

The advisors thought Jeju 4·3 was connected with North Korea or the Soviet Union, but they were never seen the proof of that connection. And they said they did not know the mass killings in Jeju island but their daily reports revealed the huge casualties of the Jeju islanders. The advisors considered the 9th Regiment Commander Song Yo-Chan who had got the most severe casualties as the very strong officer. The main tasks of the advisors in Jeju island contributed to the suppression and the destruction

of the rebellion of the so-called 'communists' and communist sympathizers rather than the correction of their policies through finding the cause of the occurrence of Jeju 4·3.

Key Words : Jeju 4·3, U.S. Military Advisor, Constabulary, Scorched-earth Operation, Mass Killings

K C I